

“의회를 지킵니다”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시 여성가족국 상임위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원실 자리에 앉아 다음날 회의 자료를 보러던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분주하던 창밖의 광주시청 앞 내방로는 급세 고요해졌고, 어디 의지할 곳을 몰라 불안해하는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밀려 들어온다.

서둘러 TV를 켜고 노트북으로는 유튜브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확인한다. 민첩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재빨리 방안을 찾았다. ‘헌법 제 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서둘러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히 국회로 모여달라 부탁했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빠르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공권력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섰다. 대한민국의 전자서명 2위이자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장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 우리 당 대표 역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 보좌진들은 죽기 살기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거두고 있다.

돌아와 광주, 지금 당장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며 속보를 보던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전파된다. 그중 ‘제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지방의회 활동이 금지됐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한다.

의회에 있다가는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창문의 블라인드를 활짝 열었다. 그리고 현재 앉아 있는 자리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한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의회를 지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포고령이 퍼지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동료 의원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의회로 모였다. 각 기초의회도 상황을 공유하며 각 의회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이 계엄령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광주시민의 대리인들의 결기는 사투 비장했다.

이어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의 각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무효선언 연석회의’가 소집됐고 시장, 구청장, 의회, 시민사회 대표자, 대학총장, 종교계 등이 모여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DNA였을까. 지금은 서로 역할을 나누고 편을 가를 때가 아니라 대동의 정신과 연대의식이 본능처럼 작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을 취재하며 상황을 파악하고자 필사적으로 뛰었던 언론계의 기자정신도 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광주에서 각계 전투가 아닌 공동되고 정제된 메시지를

확정 짓고 대응 방안을 정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은 개최 정족수가 채워졌다. 190/190 찬성.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아직 마음을 쓸어내리기에 이르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비상회의를 마치고 각자 위치로 복귀한다. 다시 간담회실로 돌아온 시의회는 타 광역의회와 연대해 계엄 규탄 성명을 발표할 전략을 세우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집결할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합류할 것과 상임위 일정을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상 그날의 일기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뭐 그게 어디일지라도 의회를 지키겠다는 글은 썼을 것이다. 직접 겪지 않았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쟁취했는지 좋은 선배들로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한이 가지는 막중한 무게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께서 믿고 위임 해주신 역할이다. 누구도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역할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오직 다시 시민들뿐이라는 생각이었다. 오늘 끌려가더라도 지켜야 할 사명이었다.

내재된 의식을 마주하며 광주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의 숭고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해본다. 더 나아가 그와는 180도 다른 의식을 가진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성난 국민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곧 봄이 올 것 같다.

社說

계엄령 이어 철도노조 파업, 혼란 막아야

광주·전남 51편 운행 중단

광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부터 광주·전남권 상·하행 노선 51편이 멈추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 조합원 26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규모는 지역 기관차 운전사·승객원 500여명, 차량 정비원 5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파업에 따라 이날 광주·전남에서는 KTX 29편(호남선 18편·전라선 11편), 일반 열차 22편(호남선 13편·전라선 9편) 이상·하행선 모두 멈춘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이번 파업 여파에 KTX가 평시보다 67%,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사는 전일까지 교섭을 이어왔으나 최종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노사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4조 2교대 전환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 승진 제도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철회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우선 수송한다는 계획이며, 철도 등 광역교통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 합동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예고된 파업인 데다 파업 첫날인 만큼 물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 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뜰이나 계엄령 여파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불어올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갈등이 첨예화하기 전에 정부와 철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사태를 하루 속히 끝내야 한다. 계엄령 선포 여파에다 물류대란까지 겹친다면 지역 경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책 읽는 광주’ 만들기 모두의 책임이다

독서인구 감소는 사회적 손실

광주시민 한 명이 1년에 책을 6.4권 읽는다고 한다.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 1명 가운데 6명 가량이 단 한권의 책을 읽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독서인구가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독서를 통한 사색과 고민은 인공지능시대, 창의성의 원천이다.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5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광주 도서관·독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6.4권,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2.4권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독서인구 1인당 독서권수는 2013년 17.1권에서 2023년 12.4권으로 4.7권 감소했다. 1인당 연간 독서권수도 전국 평균보다 0.8권 낮았다. 매체별로는 종이책이 8.7권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책 3.3권, 오디오북 0.4권이다. 세대나 계층별 독서인구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독서 인구비율이 전

국적으로 매년 급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청소년의 독서량은 이보다 낮을 것이 뻔하다.

독서의 장점은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사고력과 창의성, 문해력을 높인다는 데 있다. 사회적 공감능력도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입시교육에 매몰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이나 요약된 정보에 의존하는 지금의 세태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인문학을 확대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크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며 자랐다.”고 했다. 독서가 지금의 한 작가를 만들고 작가를로서의 문학적 통찰력을 키워준 셈이다.

독서인구를 늘리는 것은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다. 광주시 등 자치단체와 교육계는 독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설립 등 다양한 독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서인구 감소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다. 지자체와 교육계, 시민 모두의 관심이 ‘책 읽는 광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스터 크리스마스트리’로 불리는 토미 리베르토가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7번가를 건너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주 벨에어에서 10년째 뉴욕을 방문해 유명 크리스마스트리를 감상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더 이상 ‘소유’가 필요없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5월,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새로운 자본주의와 인류 문명의 변화를 담은 책 ‘소유의 종말’을 출간했다. 앞으로의 미래는 자본주의의 상식이었던 ‘소유’에서 벗어나 ‘접속’을 통해 사용하고 체험하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구독 경제’.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접속에 들어가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고, 결국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접속해 사용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었다.

‘구독 경제’의 선두 주자는 넷플릭스였다. 1990년대 월정액을 받고 DVD를 빌려주는 월 구독 모델을 도입한 넷플릭스는 2000년대 들어 무제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구독 서비스가 ‘넷플릭스 모델’로 통용될 정도였다. 넷플릭스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아마존 등도 잇따라 구독 서비스에 동참했다. 도서를 무제한 대출하거나 오디오북과 강연을 무제한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금은 자동차를 구독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일상이 됐다.

소유와는 반대 개념인 구독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가 최선이었던 자본주의 시대,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많이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많은 상품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반대로 구독은 소비자에게 값비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또한 비용부담 없이 기존의 상품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다. 기업의 목표도 과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서 지금은 고객과의 시간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가전 구독 서비스를 본격화 했다는 소식이다. 삼성이 출시한 ‘인공지능 구독클럽’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 대형 가전 구독 사업을 시작한 LG전자도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분야로 구독 상품 범위를 확대했고,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도 23종으로 늘렸다. 리프킨은 구독 경제를 두고 ‘문명의 위기’라고 했다. 모든 것이 유료로 바뀌면 궁극적으로 인간마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다가온 접속의 시대, 편리함도 좋지만 건강한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